

데스크 시각



윤현식 경제·행정 부국장

가끔 시간이 날 때 거리를 걷는다.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큼 현장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은 없다. 사람이 아닌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걷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좁은 답은 습관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갈수록 쇠락해가는 거리의 변천을 너무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로 북적였던 구 시청 사거리의 밤은 완전히 암흑으로 바뀌었다. 거의 80%가 문을 닫았다. 구도심인 충장로·금남로, 신도심인 상무지구·용봉지구·첨단지구 등에도 임대·매매 문기를 침침하게 내건 상점들이 즐비하다. 점주, 종업원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으며, 무엇을 하고 있을지 쓸데없는 궁금증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노조, 기업 유치·지역 발전 힘 모아야

물가는 천정부지다. 이미 점심값 1만원 시대가 열렸고 이·미용, 세탁 등 개인 서비스 비용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부담은 날이 커지고 있다. 금리는 높인데 화폐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가상화폐나 수도권 부동산 등 투기 자산들의 몸집은 비대해져 부의 양극화는 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부유층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세금도 없이 부를 키워가자

지역 경제 살리기 시급하다

만, 그 나머지는 신세 한탄이 고작이다. 세계 경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쭉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세계 각국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며칠 전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 추가 관세 10%를 예고했으며, 곧 그 파고는 우리를 덮칠 것이 자명하다. 멕시코, 터키 등 외국에 진출해 있거나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은 고금리에 관세 폭탄까지 격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광주 수출 품목 1위 반도체는 지난해와 비교해 20% 이상 수출액이 떨어졌고, 전남 경제의 '효자'인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매출, 세금 납부액 등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상점과 기업은 지역 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이다. 이들이 거리를 활력 있게 만들고, 지역민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며, 세금을 납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지난 6월부터 기업인, 경제 관련 기관장·단체장 등 경제인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랫동안 경제 현장에서 기업, 기관, 단체를 이끌어온 그들에게 이 지역의 미래가 경제적으로 보다 나아지기 위한 해안을 구하고자 함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지역민·지방자치단체의 친기업 정서, 경제적 사고, 기업·자본 유치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 정부의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조치 등을 바라고 있었다. 가장 먼저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조가 사회적 책임, 지역의 미래 등을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존 재감, 영향력 과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 지역민 모두의 지지를 받고 현대자동차 위탁이라는 혜택을

받아 출범한 지역기업이 5년여 만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부흥에 국가 재정 아끼지 말기를

지역 성장·발전, 기업의 유치·정착·성공에 노조가 적극 협력하고 그 안에서 역할과 몫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고, 경제적 이슈에 둔감한 지역 내 분위기도 일신해야 한다. 주택·사무실 공실률 및 밀실률, 미분양 주택, 수출액, 취업률, 기업 및 투자 유치, 상장기업 동향 등의 정보가 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에 가져다줄 현재 또는 미래 이익이 확실하게 공개 검증된 경우 명분은 과감히 뒤로 미룰 용기도 필요하다.

수도권·영남권에 정부 재정을 집중시켜 특혜·압축 경제로 성장해 성공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균형재정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외면해왔던 지방 대도시·중소도시·읍사거리의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서울의 80% 수준을 갖추게 해야 할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학·민간 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이전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 인구 증가를 이끌고 동시에 대중교통의 질 향상, 명품 가 로 조성 등을 통한 도보 인구 창출로 거리의 상징들이 활력을 되찾게 지원해야 한다.

중세 유럽은 무역, 식민지 개척 등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지방 도시에 투자했다. 그 덕에 수백 년이 지나도 유럽의 다양한 도시들이 각각의 매력을 뽐내며 여전히 반짝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리고 몇 백년 미래를 위해 지방의 상업·산업을 부흥시키는데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은펜칼럼



최형태 전남대 명예교수

2022년 3월 초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때 짝을 후보가 없다고 탄탄한 국민들이 많았다. 다른 대선 때라고 그런 말이 안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2022년 대선 때 특별히 그랬다. 역대 최악의 선거였다고 평가한 사람들도 있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험러지기 시작한 것은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이 바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면서부터였다. 나라를 이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단순히 반문재인 정서와 반박언기를 무기 삼아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사실상 안개 정국의 국면이 접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후보의 대항마였던 이재명 후보도 선명한 후보였던 것은 아니다. 그는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와 성남 시장과 경기 지사를 지내면서 보여준 리더십으로 열성 지지자를 확보했지만, 몇 가지 스캔들과 고소·고발 사건 등은 그의 미래와 대한민국 정국에 어두운 그림자임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승자가 된 윤석열이 행정부를 지배했고 패자가 된 이재명은 국회를 지배했다. 검사 출신 윤석열

안개 정국

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법대로'라는 이름 아래 경쟁자들에 대한 보복에 나섰고, 그 결과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었다. 준비가 안 된 그의 대통령직 수행은 민생 파탄,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평화의 위기로 특징된다. '잘 한다'는 평가가 20% 미만으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는 그가 국민에게 이미 심리적 탄핵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과 진보진영은 이 심리적 탄핵을 법적 탄핵과 퇴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받은 퇴진을 요구하는 세력과 임기를 지키게 하려는 세력 사이의 극한 대결 국면이 될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앞길도 자욱한 안개로 덮여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1심에서 유·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두 개의 최종 재판 결과는 누구도 짐치기 어려운 상태이다. 두 사건 모두 2심과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 대선판이 요동칠 것이다.

윤석열 진영과 이재명 진영 모두 자신들 앞에 높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폄하하는 '악마화 정치'를 선호한다. 그 결과는 뻔하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국가의 중대사가 뒷전에서 밀려나고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과 국론 분열만 남겼다. 대한민국호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국정쇄신이고 다른 하나는 개헌이다. 국정쇄신은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고, 개헌은 잘하면 그에게 7공화국 산파의 주역이라는 업적을 안겨줄 수 있는 매력적 요소이다. 현시점에서 국민 다수는 대통령제 유지, 4년 중임제, 대통령 권력분산, 선거법 개정 등을 선호한다. 윤 대통령이 이런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덧붙여 비록 실현 가능성은 약하지만,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하여 7공화국 탄생에 솔선수반하겠다고 선언하면 안개 정국에 큰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자신들 앞에 놓인 시야제로의 상황을 타개 또는 완화해나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79년 5월 말, 연금 상태에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평생의 경쟁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행한 발언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김(영삼) 총재와 나를 라이벌로 보지 마십시오. 나라가 잘되려면 여러 인물이 커야 합니다. 내가 민주 회복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고, 김 총재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2, 제3의 김대중이와 김 총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쓰러지고, 하나가 병들더라도 올바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1945년 해방부터 1987년 6월항쟁 때까지 대한민국 역사는 1789년부터 1871년까지의 프랑스 역사처럼 많은 투쟁과 피를 요구받았다. 반면 1987년 이후의 역사는 영국 역사처럼 점진적·민주적·평화적 발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024년의 안개 정국을 잘 돌파하여 점진적·민주적·평화적 발전의 역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기고



임성애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로 급격한 산업발달을 통해 중공업, 반도체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을 배출하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진 결과, 우리의 노동문화는 안전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을 당연시했고, 지금도 우리는 주변에서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23년 기준 828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1조 원에 달한다. 이는 GDP의 1.3%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이며, 노동자 1만 명당 사망률(0.51%)은 독일(0.15%)·일본(0.17%) 등 선진국의 2-3배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현장에서 되풀이되는 비극적

안전의식 향상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

사고와 재해를 끊어내기 위해서 안전의식 수준의 내재화와 안전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등 우리의 인식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건설현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가 여전하다.

우선 건설업계 관행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경영상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신규 기술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단순 노무는 용역업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와 60대 장년층을 고용하는 탓에 이·사·소통 혹은 신기술력 저하에 따라 작업에 많은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또한 입찰제도상의 문제도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0억 원 미만의 공사 입찰은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과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하도급 계약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가 적어져 부실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의 기술인력 확보와 수급방안을 모색하고, 현재의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노동시장 및 제도상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불량'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편안한 가운데서도 위험요소를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경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공사에서는 철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일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관리표준 VAR 준수, SNS 이용한 스마트한 TBM활동 실시, 매일 안전 점검 일지 작성 등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사도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수준평가와 위험성평가를 추진하여, 자체적으로 시설물 및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률이나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 현장에서 위험이 보내는 작은 시그널도 간과하지 않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社說

'유네스코 창의도시' 10년... 관광산업 연계를

유네스코가 지정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는 세계 24개국, 25개 도시에 이른다. 영예롭게도 광주시는 지난 2014년 12월 1일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됐으며, 이제 10주년을 맞았다.

광주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필요한 하드웨어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지만 미디어 아트의 산업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광주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 이후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광주문화재단 특화공간 마련, 창의도시 육성 지원 조례 제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후 2018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2024년 광주시 전역을 5개권역으로 특화해 시설물 설치, 미디어아트 영상 표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문화전당권을 시작으로 금남로, 사직공원, 양림동, 송정역권을 완료하기가

지 6년의 기간이 걸렸다.

10주년을 맞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절대 과제는 콘텐츠를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인 지맵(GMAP·Gwangju Media Art Plaform)의 전문화와 위상 재정립이다.

2022년 개관한 지맵은 미디어아트 생태계 구축, 순수예술과 첨단 기술 융합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 미디어아트 창작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미디어아트 관련 전시,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맵의 센터장을 제외하곤 전문 인력이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제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는 토대 구축을 마친 만큼 예술과 기술·산업의 연계를 광주의 문화자산과 관광산업으로 확장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맵의 전문 인력 확보가 우선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각 출발 '5·18정신계승위' 현안 처리 시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 핵심 과제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5·18 정신계승위원회(이하 정신계승위)가 너무 늦게 출범하는데 대한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신계승위는 지난 5월 공포된 5·18민주화운동 통합 조례에 따라 신설하기로 한 심의 기구다. 광주시는 11개로 늘어져 있던 5·18 관련 조례를 1개로 통합하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왜곡 대응 등 핵심 과제에 대응하는 각종 사업의 컨트롤타워로 정신계승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 조례 공포 7개월만 오는 16일에야 위원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갖기로 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30명에 달하는 위원에게 5·18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사전 지식을 알릴 시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첫 회의에서 임원 선출과 소위원회 구성만 안건으로 상정해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한 현안만 하더라도 올해 안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고 흉남 순화사 가옥 보존사업과 옛 적십자 병원 활용 방안, 화정동 505보안부대 옛터 등 5·18 사적지 활용 방안이다. 망월동 구묘역 성역화 사업도 내년 실시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정신계승위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빠듯하다.

정신계승위는 유무형의 기념사업과 정책을 총괄하는 심의 자문기구다. 정신계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5·18 현안과 핵심 과제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광주시가 조례 11개를 1개로 통합한 것도 컨트롤타워를 뚝으로써 신속한 결정과 그에 따른 실행을 위해서였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분한 교육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간에 쫓겨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無等鼓

식재로 구입 차 들른 집 앞 마트에서 반가운 먹거리를 발견했다. 매년 겨울이면 씹새소로 즐겨먹었던 푸릇푸릇한 봄동이 아채코너에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벌써 봄동이 나올 시기인가 싶었는데 나온 지 한참 됐다고 직원이 귀띔해준다.

봄동은 노지에서 겨울을 보내 속이 들지 못한 배추를 말한다. 겨울바람을 이기기 위해 잎이 땅에 붙어 퍼져 자라선인지 겹잎이 속잎을 감싸는 결구(結球) 배추와 달리 노란색 속잎까지 한눈에 보일 정도로 바깥으로 잎이 퍼진 모양이다. 고소하면서도 달콤 짭짤한 맛이 좋아 씹새소, 관 건조에 도용이 되는

이름을 가진 데에는 재미난 유래가 전해온다. 봄동의 발음은 '봄:뫼'으로 표기가 되는데 발음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뫼'이다. 땅에 붙어 퍼져있는 모습이 봄에 만난 소뫼 같다고 해서 '봄뫼'으로 불리다가 음식에 퐁이라는 표기가 좋지 않아 '봄뫼'으로 불리게 됐다는 것이다.

봄동은 생명력이 강하다. 추운 겨울 때 서운 바람과 눈서리를 이겨내고 겨울을 난다. 봄의 에너지를 듬뿍 담고 있어서인지 실온에서도 싱싱함이 오래가는 채소다. 영양가 면에서도 뛰어나다. 면역력을 올려 주는 비타민A와 C,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봄동

샐러드, 된장국, 나물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된다. 맛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봄동 최대 주산지(진도)에서 나고 자란 탓에 봄동을 보면 반가운 마음부터 앞선다.

봄동은 이름에서 풍겨지는 이미지와 달리 봄이 아닌 겨울철에 맛보는 채소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제철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채소'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미 초겨울부터 시장과 마트에 등장한다. 그런데도 이름 때문에 봄에 나는 채소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봄뫼'이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봄동 속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춰주고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암을 예방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이만한 식재료가 어디 있을까. 올 겨울 우리 가족 식탁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 없이 '봄뫼'이다. 밥상 가득 봄뫼 요리를 즐기며 '겨울을 이겨낸 봄뫼'처럼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 보자.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text. Include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header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